▌일반논문 ▌『로컬리티 인문학』 28, 2022. 10, 7~38쪽 http://dx.doi.org/10.15299/tjl.2022.10.28.7

근대 식민주의 비판과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
- 조지 오웰의 『버마 시절』을 중심으로

배윤기**

| 국문초록 |

이글은 조지 오웰의 첫 소설 『버마 시절』(1934)을 통해 그의 '근대 식민주의 비판'의 특징을 살펴보고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식민화를 통해 국가도 역사도 없는 나라에 근대적 국가 수립을 돕는다고 표방하는 제국의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식민주의 문제 해결을 서구에서 발원한 민족주의와 국가 주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위로부터의' 관행적인 시각을 넘어, 식민주의를 '아래로부터' 검증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식민주의 논의 자체의 탈식민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서 작품 『버마 시절』에서 오웰의 식민주의 비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인공 플로리(John Flory)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의 식민주의 비판이 이념・가치 같은 추상적 개념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념・가치의 진위를 점검하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웰의 식민주의 비판이 갖는 특성을 갈무리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 청산에서 그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조지 오웰, 버마 시절, 제국주의, 식민주의 비판, 탈식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07287).

** 독립연구자(bygwind@hanmail.net)

| 차례 |

1. ‘블레어’에서 ‘오웰’로
2. 식민주의 논의의 탈식민화 가능성
3. 제국의 위선과 식민의 아이러니
4. 오웰의 자리, 아래로부터 식민주의 비판
5. 결론

1. ‘블레어’에서 ‘오웰’로

조지 오웰(본명 Eric Arthur Blair)은 ‘논란의 작가(writer of polemic)’란 이름이 어울리는 글쟁이였다. 그의 글은 동시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커지는 그의 유명세를 따라 점차 논란의 파급 범위는 넓어졌다. 오웰은 글의 내용, 거기서 나타난 생각, 그리고 삶의 스타일까지 동시대 지식인들과 아주 다른 길을 열어나갔다. 그는 글을 쓰고 주장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고, 현장에서 겪은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집필했다. 거기서 세계를 매끄럽게 해명하는 이론과 지식의 허구를 확인했고, 울퉁불퉁한 불편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밑바닥 삶에 관해 말할 때, 접시닦이로, 부랑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쟁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총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글을 썼다. 이는 그의 글에 “도덕적 권위”[1]라는 위력을 부여했다.

더욱이 그의 글은 정치적 진영의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왜곡까지 하는 여론 주도 지식인들의 정치적 욕망과 위선을 지적

1) Jeremy Paxman, “Introduction”, *Shooting an Elephant and Other Essays*, London: Penguin, 2009. p. xiii.

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그들에게 연구실과 카페를 벗어나 검댕 묻고 바퀴벌레 다니며 냄새로 찌든 탄광촌 노동자들 집과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목소리를 들어보라, 권한다. 이렇게 표출되는 "그의 가짜와 위선에 대한 혐오"[2]는 우파는 물론이고 같은 진영이라 여겼던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동시대의 본질적인 임무"가 사회주의 정당의 선도 투쟁 및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웰에겐 "도덕적 명령(moral code)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3]이었다. 이런 지점들에서 논쟁은 그의 글과 주장이 '학문적' 혹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출발부터 다른 오웰의 정치적 입장은 이론적 견지에서 특정될 수 없다. 소비에트와 같은 관료주의와 독재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트로츠키주의에 가깝고, 노동자 계급의 자발성을 혁명의 근본 동력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무정부주의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이념의 진영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노선을 "전체주의에 대항하고, 내가 이해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하여"[4]라고 느슨하게 정리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현장 체험을 거듭하며 뚜렷해졌지만, 그 전환점은 바로 5년 동안 버마[5] 제국주의 경찰로 복무한 식민지 생활이었다. 따라서 오웰의 삶은 계급사회라는 유리 장벽 안에서 성장했던 버마 이전과 장벽을 깨고 밖으로 나가 그걸

2) John Wain, "George Orwell as a Writer of Polemic", *George Orwell: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aymond Willia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p. 91.

3) Stephen Ingle, "A Note on Orwellism", *Political Studies* 28: 4. 1980. p. 592.

4) George Orwell, "Why I Write," *Why I Write*, New York: Penguin, 2005. p. 8. 앞으로 오웰의 영문 저작 인용의 경우에 한해서 "출처의 첫 글자"와 쪽수만 밝힌다.

5) 현재 쓰이는 '미얀마(Myanmar)'라는 이름은 군부 독재정권이 아무런 공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바꾼 나라 이름이다. 그 외에도 군부는 다수 지명과 강 이름을 변경했다. 심지어는 수도까지도 군사작전 치르듯이 랑군(현재는 '양곤'으로 바뀜)에서 네피도로 느닷없이 이전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군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버마'라는 이름을 고집하기도 한다(세가와 12-71, 참조). 이글에서는 작품 제목이 '버마'이고, 식민지 버마를 다루는 까닭에 '버마'라고 통일한다.

허물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버마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중산계급이었다. 영국 중산계급은 19, 20세기 주인의식을 갖고 영국 사회를 주도하던 전문직과 상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회적 책임감, 성실과 검소한 생활, 종교적 경건함 등 빅토리아 시대 정신과 윤리를 세례 받았다. 게다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가 졸업한 이튼 학교(Eton College)는 영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양성 교육기관이고, "1917년도 학생 명단의 '에릭 블레어, KS(King's Scholar, 왕의 장학생)'"[6] 문구처럼, 블레어는 교내에서도 일종의 특권층에 속했다. 어느 정도 반항적 기질을 가졌지만, 온건한 작가를 꿈꿨던 오웰은 학창 시절 생각을 회상하며, "나처럼 부르주아의 완충 장치 같은 계급에게 '평민들'은 여전히 야만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였다"[7]고 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가 이튼을 졸업하자 바로 버마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그는 인도 동북부 벵갈 지방 모티하리(Motihari)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친가는 한때 자메이카에서 대농장주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쇠퇴했고, 할아버지는 인도, 호주 등지에서 활동한 성공회 목사였으며, 아버지(Richard Blair)는 대영제국 정부 아편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국 수출용 아편 품질 검사관이었다. 어머니 리무쟁(Ida Limouzin) 쪽 외가 또한 정착 식민지인이었다. 그녀는 3세대에 걸쳐 버마 이라와디 강(the Irrawaddy) 하류 지역을 터전으로 티크 목재 사업을 하는 프랑스 사업가 집안에서 성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어릴 때 영국으로 가서 교육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연금 소득이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었고, 그의 이튼 성적으론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식민지와의 태생적 연관에다 아버지의 식민지 공무원직 권유가 있었다고 한다.

6) 아드리앙 졸므, 『조지 오웰의 길』, 김병욱 옮김, 서울: 뮤진트리, 2020. 20-24쪽 참조.
7) *Road*, p. 132.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주객관적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체제 수호자'인 제국 경찰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블레어는 마치 시시포스(Sisyphos)처럼 '백인의 짐'이라는 바위를 산 정상으로 올려놓고자 했던 충실한 '제국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청년기 생각을 명확히 정리한 바는 없지만, 제국주의를 정말 식민지(인)를 돕는 숭고한 이념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블레어는, 그러나 이후 "인도제국 경찰이란 맞지 않는 직업으로 버마에서 5년을 소모"했지만, "덕분에 제국주의 본성을 어느 정도 이해"[8]했다, 회고할 정도로 변신했다. 그 앎과 성찰의 과정에는 식민의 억압에 짓눌린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따랐고, 그것이 바로 경찰직을 그만둔 이유였다고 토로한다.

그는 "사악한 전제정치의 부속품"으로서 행해야 했던 "스스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한 "죄책감이 너무 엄청나서 속죄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식민 지배자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뿐 아니라, "피억압자는 항상 옳고, 억압자는 언제나 그르다는 단순한 이론"[9]을 지울 수 없는 '상처/훈장'으로 남겼다. 이런 심정으로 귀국한 그는 나름 계급적 편견과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문명의 중심인 런던과 파리 빈민가로 들어가 '유럽 안의 버마'를 체험했다. 이와 같이 버마는 '제국의 아들'에서 '반제국주의자'로 극적인 전환, 청년 '블레어'에서 작가 '오웰'로 일신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이글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식민지 생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노출하는 첫 소설 『버마 시절(*Burmese Days*, 1934)』을 통해 오웰의 '근대 식민주의 비판'의 특징을 살펴보고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식민화를 통해 국가도, 역사도 없는 나라에 근대적 국가 수립을 돕는다고 표방하는 제국의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

8) "Why", p. 6.
9) *Road*, pp. 137-138.

하고, 식민주의 문제 해결을 서구에서 발원한 민족주의와 국가주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위로부터의' 관행적인 시각을 넘어, 식민주의를 '아래로부터' 검증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식민주의 논의 자체의 탈식민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서 작품『버마 시절』에서 오웰의 식민주의 비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인공 플로리(John Flory)의 언행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의 식민주의 비판이 이념 · 가치 같은 추상적 개념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 삶의 현장에서 이념 · 가치의 진위를 따지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웰의 식민주의 비판이 갖는 특성을 갈무리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탈식민의 남아 있는 과제들 청산에서 그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식민주의 논의의 탈식민화 가능성

근대 '제국주의' 개념은 강국들의 '팽창주의'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대서양 삼각무역이나 인도양 무역 같은 형태로 상인 자본들이 주도했고, 식민지 강탈을 무력으로 보호하는 '제국'은 있었으나, 식민모국이 식민지를 직접 다스리는 이념, 즉 '제국주의'는 없었다.[10] 국가주도 제국주의는 18세기 시민혁명과 계몽사상 파급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등과 나란하게 체계를 잡았으며, 헤겔 등에 의해 서구 중심 발전론적 역사관이 근대 지식체계 기틀로 세워지면서, 제국주의의 '인류사'적 필연성 혹은 정당성이 조작됐다. 이른바 '근대식 교육'은 이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제국 내는 물론 소위 '역사 없는 땅,' 식민지로 이식되고 파급되기 시작했다.

10)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2000. pp. 40-41 참조.

1800년 서구 열강이 실제로 지구의 약 35%를 거머쥐었고, 1878년 그 비율이 67%, 1914년 즈음 전체 합이 대략 85%에 달했다.[11]

"'제국주의'는 먼 영토를 통치하는 지배자로서 제국 중심의 태도와 이론과 실천을 뜻한다. 거의 언제나 제국주의 실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식민주의'는 머나먼 영토에 [제국주의자들의] 정착지를 이식하는 것"[12]이라 정리된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가 우월한 인종 혹은 민족이라는 '집단 욕망'으로 조작되어 먼 영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합리화라고 한다면, 식민주의는 그 이념을 방향타 삼아 식민지(인)들을 개화/수탈하기 위한 제도, 기구, 기반시설 따위를 수립하며 실행되는 구체적인 실천 논리인 셈이다. 따라서 "식민주의란 집단 간의 지배 관계로서, 이 관계에서는 종속민의 삶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식민지 전통사회와 문화에] 적응 의지가 거의 없는 소수 식민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식민자들은 외부[식민 모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며, 실제로 이를 관철시킨다,"[13]고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인류사 진보를 선도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제국의 이념적 논리가 식민지들에서 정치, 행정적 실천(원주민의 반란 등 반응과 이에 따른 대응과 수정을 거치면서) 논리로 발전했던 내용이 식민주의라 해석 가능하다.

제국의 식민주의 실천, 다시 말해 '식민화'는 본국의 '국민화'와 함께 이뤄졌다. 특히 식민화에서는 무엇보다 군사력이 기본 바탕이지만, 모든 실천이 사람을 통하는 까닭에, 피식민자뿐 아니라 식민자에게도 교육・선전을 통한 문화공작이 병행되어야 했다. 이를테면 '문명화된 서구'와 '우월한 백인종' 대 '미개한 식민지'와 '열등한 유색인종'이라는 폭력적인 전제 혹은 가정이 각각 '순응적' 가치로 내면화된다면, 실천 과정에서 식민자의 양

11)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3. p. 8.
12) Edward Said, 앞의 책, p. 9.
13) 위르겐 오스터함멜, 『식민주의』. 박은영・이유재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6. 34쪽.

심도 편하고 피식민자의 저항감도 덜어준다. 따라서 이런 교육 훈련의 반복은 '은혜 베푸는 자'에겐 자부심을, '은혜 받는 자'에겐 제국과 식민자에 대한 경외심을 각인한다. 그러므로 "식민지주의는 단지 주권과 영토의 확대나 지배하에 있는 토지나 주민으로부터 수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주의의 내면화를 꾀하며 또한 그렇게 내면화된 식민지주의로 지탱되고"[14] 있었다.

유사한 문맥에서 사이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특정 지역들과 사람들이 [제국 혹은 선진 문명의] 지배를 **필요로 하고**(*require*) 간절히 원한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식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배와 밀접히 연관되는 지식의 형태들에 의해 지지받고, 어떤 경우엔 강제적으로 추진되기까지" 한다면서, "고전적인 19세기 문화적 생산물들의 어휘 목록에는 '열등 인종'이나 '예속 인종', '복종하는 사람들', '의존성', '팽창', 그리고 '권위' 따위 같은 단어들과 개념들로 가득 차"[15]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바탕에서 서구가 만들어 전 세계로 파급시킨 '고전'이란 이름의 문화 생산물들은 식민 모국의 국민교육(국민화) 자료였던 동시에, '신교육' 혹은 '선진 교육'의 이름으로 먼저 피식민 엘리트를 교육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파급시키는 식민화를 위한 선전물로도 활용되었다. 탈식민 과정을 거쳤던 국가들 대다수가 독재의 굴레를 장기간 벗어나지 못했거나 지금도 못하는 상황은 이런 식민화 영향의 지속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버마는 오랫동안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잠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방식을 세례받은 엘리트 집단의 독재에 현재까지도 시달리고 있다.

---

14) 니시카와 나가오. 『신식민지주의론: 글로벌화 시대의 식민지주의를 묻는다』. 박미정 옮김. 서울: 일조각, 2009. 35쪽. 니시카와는 제국/식민의 관계가 제국 내 식민주의 실천, 즉 중앙/지방 관계와 어떻게 내밀하게 연관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국/식민 관계에서 이식되고 실행되어 검증된 행정체계가 다시 제국 내 중앙/지방 관계로 복제되고, 이 관계들 사이 상호 작용들은 오늘날 국내적 · 국제적 불균등 발전 같은 문제들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15) Edward Said, 앞의 책, p. 9.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식민주의 논의에서 '빼앗긴 국가주권'의 문제와 이의 해소를 위한 '민족해방'이라는 환원 논리가 서구 이론적 지식의 또 다른 함정이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주의 논의의 탈식민화를 위해서는, 식민주의 실천으로서 '식민화'가 언제나 인종주의의 실천으로서 자기 결정권 박탈이라는 '노예화'와 함께 나란히 실천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식민주의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식민주의를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으로 만든 것은 바로 식민 당국자 및 식민지 개척자의 인종주의 태도"[16]였던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복제된 식민주의 유산으로 국가 주권 회복을 이끌거나 그저 이양받은 피식민 엘리트가 추진하는 근대화와 국민화는 국민의 노예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기도 했다. 피식민 인민들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시야 확보의 필요성은 여기서 생겨난다. 세제르(Aimé Césaire)는 이런 맥락을 독특한 방식으로 부각시킨다.

> 어떠한 인간적 접촉도 없다. 오로지 식민자를 학교 감시자, 군 하사관, 교도관, 노예조련사 따위로 변신시키고, 토착민을 생산수단으로 변모하게 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 있다.
> 내 해석은 다음 등식으로 집약된다. 식민화="물건화"(thingification).
> 식민자들의 우레 같은 함성이 들린다. 식민자들은 진보에 관해 이야기한다. "성과들", 치료받은 질환들, 향상된 생활의 질 따위에 관해서.
>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들 본질이 고갈된 사회들, 짓밟힌 문화들, 훼손된 제도들, 몰수된 토지들, 박살난 종교들, 파괴된 웅장한 예술적 창조물들, 근절된 특유의 **가능성들**이다.
> 식민자들은 내 머리에 통계 수치, 도로와 운하와 철로의 길이 따위 사실들(facts)을 주입한다.
> **나는** [그런 사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희생된 수천수만 사람들을 이야

16) 마르크 페로, 「서문: 식민주의, 식민화의 이면」, 『식민주의 흑서』, 고선일 옮김, 서울: 소나무, 2008. 47쪽.

> 기하고 있다.... 나는 자기네 신들, 자기들 땅, 자기네 관습, 자기들 삶(생활방식, 춤 의식, 삶의 지혜)에서 뿌리 뽑힌 수백만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17]

세제르는 식민자들의 큰 목소리와 자신의 작은 목소리를 그림처럼 대비시켜 식민주의의 본질을 부각시킨다. 식민자들이 소위 '문명의 진보'가 가져온 공식적 성과들과 기록된 사실들을 내세우며 스스로 도취되는 반면, 세제르는 식민 정부가 부인하고 기록하지 않는 원주민들의 생활 연속성과 생명의 파괴와 희생을 거론한다. 식민지라는 진보의 극장 건설 과정의 물리적 성과와 통계치는 수량화되어 교육되는 가운데 사람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고 또 눈에 보인다. 그렇게 식민지배 당국에 의해 기록된 자료들은 오늘날까지 식민/탈식민 사회 연구와 민족사 가공과 재해석의 기초 사료가 된다.

하지만 그 진보의 극장, 그 옆 혹은 뒤쪽에서 눈에 띄지 않고 위협받고 결국 퇴출되는 고유 생활양식과 문화, 그 건설 전 과정에 강제로 동원되고 착취되며 희생되는 인간의 노동력과 생명은 버려지고 감추어지는 까닭에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식민화를 통해 진보의 극장에 진입한 개화 엘리트는 식민자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한편, 탈식민화 과정의 지배적 논리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해방 이후에도 주인 바뀐 큰 목소리가 여전히 탈식민사회를 지배하고, 작은 목소리는 어김없이 억압되거나 외면된다. 이들은 좌파의 민족해방론과 우파의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대립과 공존의 틀을 마련하고, 탈식민 사회 극장의 역사적 주인공이 된다. 따라서 인민은 '역사 없는 사람들'이다. 오웰은 "버마인들에게 그들의 마을은 소우주에 해당된다. 논밭에서 평화롭게 농사짓도록만 해주면 그들은 자신

17) Aimé Césaire, *Discourse on Colonialism*. Trans. Joan Pinkha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pp. 21-22.

의 주인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18]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인민에게 국민화와 식민화는 궁극적으로 자기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든 식민지든 바로 이 지점(평화롭게 농사짓는 마을=소우주)에서 세계를 보고 또 이해한다. 그러므로 인민은 '국가 없는 사람들'이다.

제국주의 정복 논리와 명분의 반복이 아니라, 원래부터 국가도 역사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인민들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식민주의를 제대로 탈식민화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은 여기서 잡초처럼 돋아날 비옥한 토양을 마련한다. 그래서 식민주의 논의에서 당연한 귀결로서 주장되고, 사명감처럼 실천됐던 '국가주권 회복'이란 과제를 비판적으로 탈식민화 해보는 일은 오늘날 탈식민 사회의 식민주의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식민지 사회 참여 관찰의 결과물, 이를테면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버마 시절』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제국의 위선과 식민의 아이러니

영국은 17세기부터 줄곧 버마와 상거래를 해왔다. 19세기 들어, 석유와 티크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이라와디 강 유역 엄청난 쌀 생산 능력을 가진 버마에 대한 식민지 병합 시도가 시작됐다. 모든 제국/식민지가 그렇듯이, 영국과 버마는 해적과 '베어먹기 좋은 빵'의 관계였다. 영국은 1824년부터 1885년까지 세 차례 전쟁을 벌이며 "탐욕의 거대한 입으로" 광대한 땅을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베어먹어, 버마는 영국령 인도제국에 한 지방으로 편입됐다. "첫 번째 전쟁은 1824~1826년 랑군(Rangoon)과 델타 지역(the

18) 조지 오웰. 「국가는 어떻게 착취되는가」, 『영국식 살인의 쇠퇴』, 박경서 옮김. 서울: 은행나무, 2021. 51쪽.

Delta), 두 번째는 1852~1853년 하 버마 지역(Lower Burma), 세 번째는 1885년 자본의 중국 교역로 확보 요구에 부응해 만달레이(Mandalay)를 포함한 상 버마 지역(Upper Burma)을 각각 집어삼켰다."[19]

영국은 버마를 100년 넘게 식민 통치했는데, 먼저 식민지 운영에 이미 훈련된 인도인 관리들과 공무원,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데려와 썼고, 이후 미리 침투하여 기독교화시킨 카렌족이나 이슬람 계통의 로힝야족 등 소수 민족들, 그리고 근대 식민지 교육을 받아 차츰 양성되는 버마 엘리트를 이용했다. 이는 소수 백인이 피식민지 소수민족을 통해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고 활용하여 버마족이 7할 이상인 인구 구성의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분리 통치하는 전형적인 제국의 지배 방식이다. 이런 영국의 정책은 식민 이후 인도 내전 및 분리 독립과 버마 소수민족 갈등을 낳는 씨앗이 된다.

당시 일반 인도인 이민자들은 버마 사회 대금업과 매춘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고, 토지를 대거 사들여 버마 농민의 토지소유 체계를 허물어 가고 있었다. 버마족 입장에서 본다면, 백인과 인도인, 그리고 서구화된 소수 민족 등 다중 식민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었다. 오웰의 버마 생활 동안(1922~1927년), 버마 민족주의 운동은 초기 단계였다. 간디의 비협력운동(1919~1922년)에 영향받아 1921년부터 버마 승려 우오타마(U Ottama)는 1924년 수감되기까지 민족운동을 폭넓게 전개했다. 버마 정국은 1930년 흐사야산(Hsaya San) 무장 반란으로 이어지며 더욱 악화됐다. 이런 민족주의 운동은 1930년대 아웅산(Aung San), 네윈(Ne Win) 등의 타킨당(Thakin) 설립으로 이어지게[20] 된다.

오웰은 도착하자 곧바로 만달레이 경찰훈련학교에 들어가 9개월 동안

19) Robert Colls, *George Orwell: English Rebel,* Oxford: Oxford UP., 2013. p. 18.

20) 이들은 제국주의 일본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반영 민족주의 세력으로 성장했는데, 이후 일제의 속내가 드러나자 결별한다. 이후 지도자 아웅산은 영국과 독립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양 작업을 하던 중 군부 내 파벌 경쟁의 여파로 암살된다. 일본의 버마 엘리트 군인 훈련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부경감 후보생으로 교육받았다. 버마인 후보생과 함께 교육받았는데, 영국인 후보생은 동양어 수업을 별도로 받았다. 오웰은 힌디어와 버마어를 아주 빠르게 습득했고, 카렌 방언 등도 배웠다. 학생 시절부터 언어 습득에 적극적이고 빨랐던 그는 몇 년 후 버마인 승려와 깊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 훈련 중 그는 소설 속 주인공 플로리처럼 동료들과 주색을 즐기며 어울리기보다 자기 방에서 책 읽기를 더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첫 근무지로 이라와디 삼각주 외딴 도시 미야웅미야(Myaungmya)에 이어, 대형 교도소가 있는 랑군 북쪽 인세인(Insein), 뱅골만 유전 지대 근처 시리암(Syriam), 이어서 랑군 동남쪽 도시 모울메인(Moulmein)에서 차례로 복무했다. 이곳 모울메인을 배경으로 그는 식민자로 군림하는 경찰이 버마 군중에 둘러싸여 내키지 않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단호한 '백인 나리(pukka sahib)'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 곤혹스런 아이러니를 묘출하는 에세이 「코끼리를 쏘다("Shooting an Elephant," 1936)」를 썼다. 그리고 1926년 말 마지막 임지 카타(Katha)로 발령받는다. 이 도시가 바로 『버마 시절』의 무대 캬우크타다(Kyauktada)인데, 버마 국토 중앙부 만달레이에서 북동쪽 250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근대 제국의 위용은 철도를 중심으로 식민지 기반시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구축하는가로 드러난다. '교역'이란 이름으로 수탈되는 식민지 생산물은 각 지역 중심인 역으로 집중되고 철로를 통해 수송되며 항구를 거쳐 제국의 입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1910년 식민정부가 랑군에서 만달레이를 거쳐 북으로 이어지는 캬우크타다를 철도 종착지로 완성하여, 상 버마 북부 지구 발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고 설명한다. 캬우크타다의 묘사는 실제 현재의 카타와도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 북부 삼림지대로 뻗어 나간 전초지들(outposts)을 연결하는 중심 도시다. 이 버마 철도는 북부의 최고급 가구 재료인 티크 그리고 중남부의 쌀 등 각종 현지 산물 운송을 체계화한 식민지 수탈의 동맥이다. 캬우크타다 거주자 약

4천 명 중 백인 사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고위 공직자와 경찰서장, 이 둘을 제외하고 플로리를 포함한 모두가 목재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밖에 인도인 2백여 명, 중국인 수십 명, 그리고 영국의 "성스러운 계통의 목사들이 버리고 간 혼혈 유라시아인 2명"[21]이다.

소설『버마 시절』의 전개는 캬우크타다 '유럽인 클럽'을 둘러싸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상호작용 하면서 그 뼈대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원주민 클럽 입회 허용 문제를 둘러싼 백인들 사이 논란과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클럽 회원이 되기 위해 대립하는 두 원주민 엘리트의 물밑 작업이다. 인도 도시라면 어김없이 그곳 중심에 자리 잡은 유럽인 클럽은 식민 권력의 실질적인 본부로 기능한다. 영국인들에게 클럽은 개발 현장 정글 원주민들과의 생활 속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을 떨치고 식민자로서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는 장소다. 다시 말해 이곳은 영국인들의 '정신적 요새(spiritual citadel)'다. 여기서 술은 식민체제라는 "기계 작동을 유지하는" 힘이다. 플로리는 백인들에게 술이 없었더라면 "일주일 안에 모두 미쳐서 서로를 죽여버렸을 것"이라며 "술이야말로 제국의 접합제"[22]라고 주장할 정도다.

인도 초대 수상을 지냈던 네루(Pandit Nehru)는 정착민들의 일상과 의식 형성의 패턴과 관련, 클럽과 술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제공한다. "인도에 들어오는 영국인 젊은이는 누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적 · 문화적 무기력 상태로 빠져든다"면서, 이들은 일과를 마치면 운동 후 클럽으로 달려가고, 위스키를 마시며 본국에서 온 화보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 정신적 퇴화에 대한 책임을 인도에 전가시킨다,"[23]고 설명한다. 이 묘사는 작품 속 클럽 풍경으로 고스란히 옮겨

21) *Burmese.* p. 18. 이 두 명의 유라시아인은 백인과 원주민 모두에게서 배척되는 사람들로, 오웰은 이런 제국의 위선을 상징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언급한다.
22) *Burmese.* p. 39.
23) 마르크 페로, 앞의 글, 51쪽. 재인용.

와 겹쳐지며, 플로리의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들 역시 식민주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인 까닭에, 플로리는 동료 백인들을 "불쌍한 악마들"[24]이라 부른다. 그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타협하고, 내밀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때문에 클럽에 모이고 술 마시며, 또 필요 이상으로 원주민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과격해진다.

한편 원주민 관리나 부자들에게 클럽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의 미군 영내 혹은 바깥의 '미국인 전용 클럽'처럼, 식민지배자 전용 클럽 출입은 원주민 엘리트가 누리는 식민주의의 달콤한 측면을 질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들의 클럽 입회 욕망은 정치·경제적 출세와 다른 차원이다. 그 근저에는 인종적 선망/차별의 상징인 '하얀 가면'이 있다. 클럽이 제국주의 본국의 표상인 까닭에, 원주민 클럽 입회는 인간 등급의 상향을 상징한다. 되기만 한다면, 설사 백인이 될 수 없더라도, 더 이상 원주민과 같은 '미개인'이 아니며,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다. 게다가 동양인 회원이 없는 유일한 클럽인 캬우크타다 클럽은 여기 백인들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인 한편, 그만큼 원주민 입회의 가치는 더 높고 욕망은 더욱 불탄다. 따라서 지금까지 클럽은 원주민에게 "헛되이 갈망하는 열반의 경지(the Nirvana)"[25]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클럽 안에 원주민 클럽 입회 요청공고가 붙었다. 식민지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행정청장의 요구를 받은 부청장이자 클럽 총무인 맥그리거(Macgregor)가 그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는 다혈질 인종주의자 엘리스(Ellis)를 위시한 백인들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원주민 엘리트에겐 철옹성에서 새어 나온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이를 두고 경쟁하는 두 원주민은 캬우크타다 지구 공공 의사이자 구치소장인 인도인 베라스와미(Dr. Veraswami)와 지구 치안판사인 토착 버마인 우포킨(U Po Kyin)이다. 우포킨은 젊은 시절부터 중상, 비방, 매수 등을 통해 밑바닥에서 지방 고위 공

24) *Burmese.* p. 68.
25) *Burmese.* pp. 17-18.

직자로 출세한 입지전적 인물이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인물이다. 반면 인도 2년제 대학을 나온 베라스와미는 식민지 관료로서 나름 품위를 갖췄지만 현지 기반이 없는 인도인이다.

클럽 내 공고 게시 이후, 플로리는 백인/원주민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가 원주민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베라스와미와 친구로서 교류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 공고로 인해 플로리는 엘리스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는데, 만장일치로 반대하면 그 입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엘리스는 그를 '흑인들의 벗'이라 빈정거리는 데다, 내성적이고 매사 소극적이며 타인과 언쟁을 싫어하는 플로리가 대놓고 베라스와미를 추천하지도 못하는 정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포킨이 '하얀 가면'을 쓰려면 두 장벽을 넘어야 한다. 클럽 문 앞에 거의 가 있는 베라스와미와 문을 열어줄 백인 플로리다.

클럽 회원이 되기 위한 우포킨의 음모와 획책은 다방면으로 감행된다. 그는 먼저 베라스와미를 최고 범죄인 '반역 음모'에 끼워 넣어 각계에 투서함으로써 모함한다. 증거는 없지만 이미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심지어 공훈을 쌓기 위해 시골 마을에서 원주민 반란을 꾸미고 직접 진압하는 일까지 벌인다. 소설 후반부 들어, 플로리와 베라스와미가 주민 집회와 폭동을 평화적으로 해산시킨 끝에 거의 클럽 회원이 될뻔 한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의 실오라기를 움켜쥐는 우포킨은 '보카도(bo-kadaw, 백인의 아내)' 행세하며 방탕한 생활 때문에 플로리로부터 버림받은 원주민 첩 마흘라마이(Ma Hla May)를 이용해 백인들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플로리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다.

교회 안 모든 시선은 플로리에게 집중되었다. 가뜩이나 고립된 상황으로 내몰리던 그가 유일한 탈출구로 청혼하려 공들이고 애써 관계를 만들어왔던 엘리자베스(Elizabeth)로부터 끝내 치욕적으로 버림받고 좌절한다.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그는 15년 버마 생활을 자살로 마무리한다. 이제 백

인 친구라는 버팀목이 없어진 고립무원의 베라스와미는 우포킨의 음모로 인해 '악당'이 되었고, 보조 의사로 강등돼 불명예스럽게 만달레이로 전근된다. 우포킨은 그동안 주민들을 갈취하여 축재한 재산으로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마침내 클럽 회원이 된다. 결국 그는 두 장벽을 넘고 승리한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엘리트는 세 부류다. 먼저 식민지 상황을 오로지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부류다. 우포킨은 여기에 전형적이다. 그는 이념이나 가치도 사회적 책임감도 없으며, 오로지 부정 축재와 신분 상승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물적 감각으로 식민자들에 충성하고 착취한 뇌물을 갖다 바치는 한편, 경쟁자를 잔인하게 파멸시킨다. 이와 달리, 자기 나라의 근대화와 국민 계몽을 위해 나름 사명감을 갖는 부류도 있다. 식민지 근대 교육을 충실히 받은 베라스와미 부류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인민들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념적 토대 위에 서서 입신출세를 위해 경쟁하고 언제든 우포킨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 언급되기만 하는 민족주의 계열은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지식인이나 승려들이다. 이들 또한 근대화와 계몽의 사명감을 갖지만, 제대로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해방을 선결 과제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된 아웅산과 그의 동지이자 버마 독재자 네윈 또한 여기에 속했다.

식민지 근대 교육을 받은 원주민 엘리트들 사고는 대체로 유럽중심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서구 의존적이든 민족해방적이든 서구가 세례 주는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고 유럽 근대문명을 자기들 미래로 설정하는 근대 교육의 산물이다. 실제로 서구식 자유주의 교육은 양날의 칼이었다. 플로리는 식민지 교육이 실제로 근대화 능력을 갖도록 공학 같은 실용 교육을 하지 않고, 기껏해야 백인들이 부려먹기 쉬운 "값싼 서기들을 생산하는 공장"[26]이라 비판한다. 그런데 그 똑같은 교육은 피식민자들에

26) *Burmese*. p. 41.

게 자유 의식을 키우는 역할 또한 있었다. 이런 결과는 영국이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로 자랑했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27]의 딜레마 혹은 식민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탈식민 사회들과 버마 현대사가 충분히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런 식민주의 세례를 받은 식민지 엘리트들의 생각이 탈식민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들이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민지배자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토착민의 특성'에 관한 이론을 독립 후에 지배 엘리트들이 바람직한 국민 양성을 위한 교본으로"[28] 삼는다는 사실이다. 베라스와미에게 피식민자들은 "열등하며 타락한 인종", "더럽고 무식한 야만인", "야만적인 소떼"다. 그들의 "비굴함과 노예근성"으로 인한 "동양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은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제국주의자와 똑같이 야만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방식이다. 일부 한국 엘리트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부르는 것과 닮았다. 그는 "무감각과 미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동양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영국이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과 질서를 가지고 왔다"면서, 결코 "바른길을 벗어나지 않는 '영국의 정의'와 '영국 지배 하의 평화(Pax Britanica)'"[29]를 찬양함으로써 제국주의 교과서 같은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베라스와미의 제국, 식민주의, 백인에 대한 찬양과 동양, 동양문화, 인도(버마)인에 대한 경멸은 엘리트들에겐 거의 공통적이다. 오웰은 직접 단정하지는 않지만, 서구 세계관을 복제하는 식민지 엘리트를 신뢰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버마 시절』을 통해 서구문명 뿐 아니라 식민지 미래의 암울함을 암시할 따름이다.

---

27) 마리 푸르카드, 「인도의 영국인(1858~1947), 또는 '냉소주의' 시대」, 『식민주의 흑서』, 고선일 옮김, 서울: 소나무, 2008. 514. 그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토착민에게, 아니 그보다는 자신들에게 과시해야 할 필요" 때문에, 형식적인 법 절차,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근대식 교육 등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또 지켰다. 이로 인해 "영국인은 늘 모순 더미라는 진창 속을 허우적거렸"다고 설명한다.

28) 마르크 페로, 앞의 글, 51쪽. 참조.

29) *Burmese*. p. 41.

4. 오웰의 자리, 아래로부터 식민주의 비판

작품에서 확인하는 오웰의 변화는 사고의 관점(standpoint)을 제국이 표방하는 추상적 가치에서 인민들 삶의 현장으로의 이동인데, 이는 작품 속 플로리의 언행을 통해 전개된다. 플로리는 일상생활에서 백인으로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원주민을 경멸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원주민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 종족과 전통은 안중에도 없는 우포킨이나 베라스와미 같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한편, 일반 원주민들에게는 무척 호의적으로 접근한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원주민의 도움으로 작은 마을로 안내되었다. 정글을 헤매느라 목이 말랐던 그는 마을 촌장에게 묻는다.

> "당신네 우물의 물은 마셔도 괜찮은 거요?"
> 촌장은 오른발 큰 발톱으로 왼쪽 다리 정강이를 긁으며 생각했다.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고, 또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지요."
> "아, 그것참 지혜로운 말이요."[30]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강요받지 않는 농촌 마을의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존경에 가까운 표현이다. 플로리는 버마를 이해하고 문화에 익숙해짐을 넘어 사랑하기까지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사귀면서 그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의도로 버마를 이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 원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안내한다. 그녀 역시 자기만큼 버마를 사랑해주기 바랬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버마 전통 축제와 춤, 전통 시장, 의술, 의례 등 토착 문화에 대한 나름의 깊은 이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

30) *Burmese*. pp. 59-60.

"나는 이것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그대를 여기에 모신 이유이지요.... 이런 기묘한 양식을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저 소녀의 동작을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상하게 앞으로 굽힌 자세와 코브라가 공격하려고 일어서듯이 팔꿈치부터 팔을 뒤트는 방식을 보세요. 그것은 기괴하고, 그것은 일종의 고의적인 추함으로 보기 흉하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불길한 것이 있답니다. 모든 몽골족에게는 악마적인 것과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이면의 예술적인 면모, 세기를 거듭한 문화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취하는 모든 동작이 무수한 세대들을 거치며 연구되고 전수되어온 것이지요. 당신이 이런 동양인들의 예술을 친밀하게 본다면 언제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똑 부러지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버마 사람들의 전체 삶과 정신은 소녀가 자기 팔을 뒤트는 방식으로 요약됩니다. 그대는 그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벼를 재배하는 평야, 티크 나무 아래의 마을들, 탑들, 노란 승복을 걸친 승려들, 이른 아침 강을 헤엄치는 소들, 띠보(Thibaw) 왕의 궁궐..."[31]

마을 축제 무대에 오른 전통춤에 대한 설명은 플로리의 식민지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현저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야만적 생활을 소개하고 심지어는 칭송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몰락한 집안 출신으로 의지할 곳 없는 그녀가 여자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에 '남자 사냥'을 왔다고는 하지만, 플로리는 제국주의 문화 속에 자란 그녀가 인종주의자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토착문화에 대한 그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은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은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혹은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시장 통에 있는 중국계 버마인 리예이크(Li Yeik)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담배를 말고 있는

31) *Burmese*. pp. 105-106.

한 늙은 여인과 소녀의 발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자기 의견을 밝힌다. 그들의 팽창해 불룩 튀어나온 발등의 발은 인형의 신발보다 크지 않은 빨간 뒷굽의 나무 신발에 구겨 넣어져 있다. 중국 전통 전족(纏足)의 형상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부자연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 "아뇨, 그들은 발을 인공적으로 기형을 만듭니다. 내 생각에 저런 문화가 중국에선 사라졌지만, 여기 사람들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지요. 늙은 리예이크의 변발 또한 시대착오적인 문화 유산입니다. 저런 작은 발이 중국인들 생각에는 아름답지요."
>
> "아름답다니!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사람들 완전히 야만인들이 틀림없네요!"
>
> "오 아니오! 그들은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보다 더 문명화되었답니다. 아름다움이란 완전히 취향의 문제랍니다. 이 나라엔 여성들의 긴 목을 칭송하는 팔라웅족(the Palaungs)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목을 늘이기 위해 넓은 황동 고리를 착용하고, 결국에 기린 목이 되기까지 고리를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입는 허리받이(bustles)나 크리놀린(crinolines)에 비하면 더 기묘한 것도 아니지요."[32]

플로리를 통해 자신의 위치 재조정을 알리는 오웰은 심지어 자기 손에 버마 기층민들의 전통 문신까지 새겼다. 그의 사망 후, "손등 위에 일련의 작은 파란 원들과 양쪽 손가락 관절부에 하나씩" 버마인들이 "총알, 독사, 악귀 따위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는 문신들"이 확인됐다. 이후 그는 버마의 시간을 담은 신체 표식들을 갖고 나머지 생애 동안 살았다. 그 문신들은 "버마가 젊은 에릭 블레어에게 부여한 근원적인 영향력"[33]을 증언한다.

---

32) *Burmese*. pp. 129-130.

33) Emma Larkin, *Finding George Orwell in Burma*. London: Granta, 2011. p. 230.

이와 같이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두는 플로리의 식민주의 비판은 주로 베라스와미와의 대화에서 분출된다. 그 자리는 백인 플로리가 식민지 버마에서 감시의 눈과 귀를 피해 그나마 마음대로 자신의 일상적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배출구다. 제국주의에 대한 플로리의 견해는 단순명료하다. "우리가 이 나라에 온 것은 도둑질 외에" 어떤 목적도 없으며, "관리들이 버마인을 제압하고 있으면, 업자들이 버마인 주머니를 터는 식"[34]이다. 그 업자들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저항을 억누르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감옥을 세우고 경찰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가져온 식민지 사회의 평화는 결국 돈놀이꾼과 법 관련 업자를 위한 제국주의 억압체제의 성과물이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근대화를 돕는다고 했던 피식민자와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두려워서, 인도 전통 기술의 선박 건조, 총포류 제조, 모슬린 천 따위를 사라지게 만든다. 이를테면 '경쟁력 없는'이란 딱지를 붙여 전통 수공업 기반을 하나씩 제거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만 식민지를 근대화한다. 심지어 전통적인 문화의 토대까지도 '후진성'을 이유로 스스로 멸시하게 만든다. 그런 세뇌를 통해 버마의 정글, 마을, 수도원, 탑 등을 다 사라지게 하고 버마인들 역시 중절모자 쓰고 똑같은 곡조만 연주하는 축음기를 트는 진보를 제공한다고 풍자된다. 식민지는 제국의 공장이 형태만 본뜬 기형적 근대의 모조품이다. 이는 앞서 인용된 세제르의 지적과 겹친다. 플로리는 "만약 우리가 문명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로지 더 크게 한몫 잡으려는 명분일 뿐"이라며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걸 팽개칠 것"[35]이라며 제국주의 본질을 꼬집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제국에 열광적으로 충성'하는 피식민자와 '지독하게 반영국적인' 식민자의 대치로 펼쳐진다. 베라스와미는 식민주의를 각인

34) *Burmese.* p. 40.
35) *Burmese.* p. 43.

한 토착 엘리트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플로리의 주장이 그에겐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대화는 언제나 접점 없이 평행선을 그리지만, 이 만남과 교류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필수불가결 하다. 베라스와미에겐 성공의 보증 수표이며, 플로리에겐 그나마 편하게 앉아 숨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이다. 이 대립 구도는 공언되는 교과서적 식민주의와 실천되는 현실 식민주의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는데, 이는 청년 블레어의 세계관 변화를 초래하는 버마 생활 가운데 일어났을 법한 자기 내면의 갈등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국과 식민주의를 이와 같이 급진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플로리가 민족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도 저항하지도 못한다. 그는 버마인들이 들고 일어나 백인을 내쫓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막대한 제국의 무력 앞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플로리의 초점은 식민지 모든 백인이 온통 거짓 인생을 살아야 하는 지금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자기 현실에 더 맞춰진다. 그는 "내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백인의 짐'이라 공언하는 비열한 속임수"와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는 영국인들의 "백인 나리 행세"[36]라고 주장한다.

이따금 플로리의 다른 견해가 들리면, 경찰국장 웨스트필드(Westfield)는 화난 목소리로 '백인 나리의 다섯 가지 주요 덕목'을 암송하며 경고한다. "지키자 우리의 위신, 부드러움 없는 엄격한 지배, 백인들은 뭉쳐야 산다, 한 치 주면 그들은 한 자를 가져간다, 단결 정신."[37] 백인들의 경우, 주정뱅이, 게으름뱅이, 겁쟁이, 험담꾼, 호색한 따위가 되는 건 자유지만, 독립적인 사고는 금지된다. 중요한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은 '백인 나리 법규'가 지시한다. 체제 유지를 위해 낱낱의 말과 낱낱의 생각이 검열되고 또

36) *Burmese*. p. 39.
37) *Burmese*. p. 191.

스스로 자기 검열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한다. 식민 체제에서 '반역죄'는 원주민, 백인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백인이 독재체제 바퀴의 톱니인 상태에서 체제는 항상 백인들이 스스로 정당화하게끔 강요하면서 "밀고자"와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바로 이런 강제와 백인의 타락이 "원주민을 향한 우리의 잔인성, 그 밑바닥에 버티고"[38] 있다.

어쨌든 플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체제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신세다. 스스로 '똥개, 줏대 없는 비겁한 놈'이라 자책하기도 하는 플로리는 '이중사고(Doublethink)'를 무작정 수용할 수 없어 방황하는 『1984』의 윈스턴(Winston)과 비슷한 처지다. 결국 식민지 영국인들은 '파괴 불가능의 금기에 의해 결속된 독재체제'의 산물이다. "반감의 은폐가 감지하지 못하는 질병처럼 사람들을 망친다. 모든 생활이 거짓 삶이 된다."[39] 바로 이런 제국의 "입단속(code of silence)"[40]에서 클럽과 술이 필요한 내적 상흔의 공간이 생긴다. 따라서 "버마에 사는 유럽인들 중에서 아주 많은 이가 자살하고 있으며, 자살 사건들은 거의 놀랍지도 않을 정도"[41]이다.

그렇다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은퇴 후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플로리에 따르면, 영국에선 제국의 전초기지 백인들이 유능하고 고되게 노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실제 업무는 원주민 하급 관리나 직원들이 거의 처리한다. 영국 사람들이 동화처럼 상상하는 이른바 '개척자들의 삶'이란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형편없는 봉급으로 30년을 보내고, 술에 절어 망가진 간과 수숫대 의자 자국으로 파인애플처럼 변모한 등을 하고서 고국에 돌아가 이류 클럽의 따분한 인간으로 정착하는" 판에 박힌 인생행로가 예정된 "저질 거래"[42]에 농락

38) *Burmese*. p. 39.
39) *Burmese*. p. 69.
40) Mattew McCoy, "Outsider on the Inside", *Peace Review*: 15:2, 2003. p. 225.
41) *Burmese*. p. 283.

당하는 운명이다. 이런 플로리의 진술은 작가가 직접 목격한 은퇴한 부친과 동료들의 말년 모습에 대한 소회로 보이기도 한다.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원주민 엘리트들의 생각과 행태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밝혔듯이 그가 버마어에 능통했고, 경찰로서 원주민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인공 플로리와 같이, 오웰 역시 비열한 인물 우포킨은 물론이고 제국과 백인을 신처럼 숭배하는 베라스와미 같은 유형에 딱히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작품을 통해 토착문화와 일반 원주민들의 지혜와 건강한 생명력을 더 긍정적으로 그린다. 이는 이후 작품들과 『1984』의 윈스턴이 궁극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생각의 싹을 확인시켜준다. 오웰이 언제나 말하듯, 문제는 그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작품을 통한 오웰의 식민주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피식민자뿐만 아니라 식민자까지도 자유로운 삶을 박탈하는 식민지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플로리의 실천에서 소극적이지만 관념으로 급진적인 저항 논리는 그런 체제가 강제하는 '거짓 인생' 때문에 '인간다움'을 빼앗기는 모든 사람의 온전한 삶의 회복을 꿈꾸는 자의 저항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버마 이후 시작한 글쓰기에서 오웰은 이상적 비전을 그려내는 어떤 추상적 이념이나 체제를 한 번도 자기 자리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이념들과 그 실천 형태인 체제들이 난무하는 근대문명의 한복판에서 생산되는 허상과 위선을 바로 동시대 인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고발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념과 체제 그리고 인종의 차이를 넘어, 그는 줄곧 육체적 노동을 하며 세상을 등뼈로 떠받치는 사람들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고, 거기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

42) *Burmese*. p. 68.

5. 결론

지금까지 소설『버마 시절』연구물들은 대체로 플로리의 성격적 결함과 이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엘리자베스와의 로맨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 비평가들[43]은 그의 성격적 결함을 오웰의 성격적 결함으로 연결시켜 비판했다. 나는 이것이 백인 중심으로 소설을 해석하는 서구 비평의 한계를 노출한다고 생각한다.

『버마 시절』의 진정한 특징적인 면모는 권모술수와 부패로 승승장구하는 우포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결국 그의 승리로 끝나는 구성이다. 이는 백인 작가의 식민지 관련 작품에서 대체로 원주민들이 피동적이며 단지 배경 정도로만 묘사되는 점과 차별된다. 흥미로운 점은 플로리를 비롯한 백인들의 주 플롯(main plot)이 많은 분량으로 흐름을 지배하는 듯하지만, 경쟁과 갈등 관계인 두 원주민의 부 플롯(subplot)이 전체 플롯을 파국으로 이끈다. 형식상의 지배/피지배가 현실적으로 전복되는 형국이다. 이는「코끼리를 쏘다」에 등장하는 백인 경찰 '나'의 상황적 아이러니와 비슷하다. 주인공 플로리가 겪는 진퇴양난 상황부터 그 갈등과 절정, 그리고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원주민(들)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코끼리를 쏘고, 플로리는 자신을 쏜다. 그리고 플로리 죽음의 상징성은 작가로서 오웰이, 이를테면 '제국의 아들'로서 자신을 버마에 묻고, 독립적 작가로 새로 태어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웰은 버마 이전의 자신을 계급적 편견을 가진 "속물인 동시에 혁명주의자"이며 "모든 권위에 대항"[44]하는 청년으로 묘사했다. 버마 이후, 그는 그럴듯한 모양새로 꾸며진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길을 빈민가를 돌아

43) 대표적으로 레이먼드 윌스엄스(Raymond Williams)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을 참조하라.

44) *Road,* p. 130.

다니며 찾아 나섰다. "내 마음이 영국의 노동 계급에게로 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내가 노동 계급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없는 체하기 아주 쉽지만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수족관의 판유리"를 돌파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까지 바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45] 책상머리 지식에 대한 의심, 철저하게 현장과 당사자 중심, 사회경제적 밑바닥(down), 그리고 언론이나 지식인에 의해 이끌리는 공론의 바깥(out)으로 나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정치권 시선이 설정해놓은 경계 너머(beyond)로 나가고 거기서 글을 썼다.

그런 노력의 첫 결실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삶』(*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1933)으로, 그리고 이듬해 첫 소설 『버마 시절』이 세상에 나왔다. 이후 그는 길지 않은 나머지 생애 동안, 근대적 권력의 군국주의 혹은 전체주의화가 일반적 추세였던 "사악한 시대(evil time)"[46]를 안타까워하며, 제국주의 근대 문명체제의 산물인 '버마'가 식민지 현장 뿐 아니라, 런던과 파리, 위건 부두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모스크바에도 있음을 확인해나갔다. 오웰에게는 어떠한 거창한 이념도 그 실천에서 구체적 개별 삶들의 인간적 품위(decency)를 왜곡시킨다면 그 훌륭한 겉모습은 위선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이다, 하고 타협하는 그 지점, 그 현장이 바로 오웰의 자리이며, 글쓰기의 출발점이 된다. 그는 제국주의를 옹호하지도, 피식민자들의 민족주의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념들과 그 실행이 초래하는 인민들 삶의 현장의 변화에 주목할 따름이다. 『버마 시절』이 피식민 인민들 삶의 현장에서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기록이라면, 이후의 작품들은 피억압 인민들의 삶의 현장에 서서 미래 세계 비전을 거창하게 그려내고 선전, 선동하는 현대의 이념들을, 그 공허함을, 그래서 이념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본격적으

45) G. O., *Road,* pp. 139-145.
46) G. O., *Why,* p. 6.

로 조명하고 비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탈식민 사회를 주도하는 이들의 식민주의 논의를 제대로 '아래로부터' 탈식민화할 수는 없을까? 희생자들 눈높이에서 본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희생과 기억을 재평가할 문이 열릴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제국에 의해 납치된 성노예, 강제노동, 징병 따위는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거나 숨겨지고 또 부인되어 역사에서 밀려났다. 건국 이후 복제된 식민주의로 집권했던 제국의 후계자들, 독재정권들에 의해 심지어 피해 당사자들조차 자기들 사연들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금 버마에서 제국의 후계자들은 군부독재의 총칼로 인민들을, 소수민족들을 여전히 학살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인종주의에 기초한 서구 중심적 근대 지식의 한계, 나아가 그 한 갈래로서 식민주의 논의의 한계는 식민/탈식민 현지의 '아래로부터' 조망하는 시선을 통해서만 지적 논의에서 뚜렷이 도드라지고, 거기서의 목소리만이 근원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이나 이념이 던지는 막연하고 공허해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발목 잡는 문제들을 다른 견지에서 접근하고 논의하며 하나씩 풀어가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당사자들에게 알맹이 있는 다양한 미결정의 미래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시각과 목소리의 진지한 수용은 시간적 과거와 미래에 지배되지 않는 사유와 논의의 '지금 여기'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버마 시절』은 이런 한계와 요구들을 곱씹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을 제공하는 자료로도 가치 있는 작품이다.

| 참고문헌 |

니시카와 나가오.『신식민지주의론: 글로벌화 시대의 식민지주의를 묻는다』. 박미정 옮김. 서울: 일조각, 2009.

말테르, 스테판.『조지 오웰, 시대의 작가로 산다는 것』. 용경식 옮김. 서울: 미래의창, 2017.

박경서.「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적 전망」.『신영어영문학』, 10, 1998. 101-122.

_____.「양 극단의 정치적 스펙트럼: 백인의 책무와 제국의 위선-키플링과 오웰의 경우」.『영미어문학』, 114, 2014. 71-92.

박홍규.『조지 오웰』, 서울: 이학사, 2003.

배윤기.「조지 오웰을 찾아서-경계에 선 삶, 생각, 언어」,『로컬리티인문학』, 19, 2018. 425-57.

세가와 마시히토.『버마와 미얀마 사이』. 정금이 옮김. 서울: 푸른길, 2008.

오스터함멜, 위르겐.『식민주의』. 박은영 · 이유재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오웰, 조지.「국가는 어떻게 착취되는가」,『영국식 살인의 쇠퇴』, 박경서 옮김. 서울: 은행나무, 2021. 45-56.

졸므, 아드리앙,『조지 오웰의 길』, 김병욱 옮김, 서울: 뮤진트리, 2020.

페로, 마르크.「식민주의, 식민화의 이면」,『식민주의 흑서, 상권』 마르크 페로 편. 고선일 옮김. 서울: 소나무, 2008. 15-66.

푸르카드, 마리.「인도의 영국인(1858~1947), 또는 '냉소주의' 시대」,『식민주의 흑서』, 고선일 옮김, 서울: 소나무, 2008. 462-539.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2000.

Césaire, Aimé. *Discourse on Colonialism.* Trans. Joan Pinkha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Clune, Michael. "Orwell and the Obvious". *Representations*; Summer 2009; 30-55.

Colls, Robert. *George Orwell: English Rebel.* Oxford: Oxford UP., 2013.

Eagleton, Terry. "Orwell and the Lower-Middle-Class Novel". Ed. Raymond Williams. *George Orwell: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74, 10-33.

Fromm, Erich, "Afterword", in *1984*. George Orwell.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1.

Ingle, Stephen, "A Note on Orwellism", *Political Studies* 28: 4. 1980. 592-598.
Larkin, Emma. *Finding George Orwell in Burma*. London: Granta, 2011.
McCoy, Mattew, "Outsider on the Inside", *Peace Review*: 15:2, 2003. 223-231.
Orwell, George. "A Hanging." *George Orwell: Essays*. London: Penguin, 2000. 14-18.
_____. *Burmese Days*. New York: Harcourt, 1962.
_____. *Nineteen Eighty-Four*.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7.
_____. "Shooting an Elephant." *George Orwell: Essays.* London: Penguin, 2000. 18-25.
_____. *The Road to Wigan Pier*. London: Penguin, 1989.
_____. *Why I Write*. New York: Penguin, 2005.
Paxman, Jeremy, "Introduction", *Shooting an Elephant and Other Essays,* London: Penguin, 2009. p. xiii.
Pritchard, William H, "Orwell Matters", *The Hudson Review*, 56, 1, Spring 2003.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3.
Stone, John. "George Orwell on Politics and W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016) Vol. 43, part 2, 221-239.
Wain, John, "George Orwell as a Writer of Polemic", *George Orwell: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aymond William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Wilkin, Peter. "George Orwell: The English Dissident as Tory Anarchist." Political Studies: 2013 Vol 61, 197-214.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83.

| Abstract |

Critique of Modern Colonialism and the Remaining Tasks of the Post-Colonial

- Focusing on George Orwell's *Burmese Days*

Bae, Yoon-Gi

This paper explores the singularity of George Orwell's critique on the modern colonialism and checks remaining tasks of the post-colonial societies through *Burmese Days*, the first novel of his, published in 1934. To do this project, firstly, critically examine the colonialism of modern imperialist which professes that the white helps the countries of the colored without history and state establish their own modern states by way of colonization. And I suggest a perspective from below checking colonialism to overcome the customary perspective from above that has reduced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colonial societies to building nationalism and assuming state sovereignty based on the western intellectual tradition. From here, we can pose the need to decolonize the discussion on colonialism. Secondly, I arrange the development of Orwell's critique on the modern colonialism in Burma through the words and actions of John Flory, the hero of *Burmese Days*. We can note that his critique is not following abstract concepts from ideologies or values but ascertaining the truth of ideologies or values utterly on the spot of people's everyday life. Finally, I finish the particularities of Orwell's critique on the modern colonialism and review some implications for

liquidating remaining tasks of the post-colonial societies.

Key Words: George Orwell, *Burmese Days*, Imperialism, Critique on Colonialism, Post-Colonial

· **논문투고일**: 2022년 9월 21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0월 19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27일